

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획·수시 감독을 확대하고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0.13.(화) 헤럴드경제, “외국인 고용사업장 17% 늘 때 정기 점검은 3% 증가 그쳐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·하반기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·점검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(연간 3천여개 사업장)

- 이와 별개로, 현안 사항이 있거나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과 폭염·한파 대비 수시(합동) 감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감독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

* 기획 및 수시(합동) 감독 사업장: ('24년) 270개소, ('25년) 269개소, ('26년) 303개소

** 폭염 점검: '23년 이후 총 390개소, 한파 점검: '25년 이후 총 250개소

- 아울러,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지정, 익명 신고센터 및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였음

- 앞으로도 기획 및 수시(합동) 감독 확대와 사전 모니터링 체계 연계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* 아울러,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외국인고용 사업장 감독 확대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김병순 (044-202-7223)